

## ‘4·19 여성 서사’와 상처의 정동

— 1960년대 여성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최 다 정\*\*

### 요약

4·19혁명은 문학사적으로 자유와 세대교체 등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사건이다. 하지만 1960년대 한국문학 장은 4·19혁명 자체를 주로 남성 작가들의 소설을 중심으로 담론화해왔기에, 당대 여성 작가의 소설은 상대적으로 독해되지 못했다. 4·19혁명은 그 자체로도 직접 형상화된 작품의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나, 1960년대 여성 작가들의 소설 상당수는 4·19를 작·간접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는 여성문학이 혁명에의 경험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했음을 방증한다. 즉 젠더적 관점을 통과해야만 포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경험과 인식의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강신재, 정연희, 박경리는 1960년대 여성 작가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한편으로 각기 다른 위치성을 갖고 있기에 혁명 역시 다양한 양태로 서사화한다. 먼저, 이들의 소설은 ‘청년-남성-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진된 비(非)남성성을 발견해내며 숭고한 영웅으로 신화화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일면 강요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동시에 미완의 혁명이라는 좌절과 혁명의 주체로 호명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중적 상처’를 입고 ‘고통’의 정동을 느끼는 여성 주체가 그 상처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규범적 배치를 무효화하고, 내면화된 욕망을 재개하고, 파악불가능성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불성립하게 만들으로써 대응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본 논문은 규범성을 구성하는 폭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변화된 존재들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정상성에 들어맞지 않는 수행적 실천을 예각화함으로써 4·19혁명이라는 젠더화된 표상을 탈구축해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899).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는 여성문학을 '4·19 여성 서사'라는 이름으로 범주화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1960년대, 4·19혁명, 여성 서사, 정동, 상처, 고통, 젠더 의식

## 목차

1. 서론: 젠더화된 혁명과 이중적 상처
2. 고통의 애착과 배치의 무효화: 강신재, 『오늘과 내일』
3. 고통의 이상화와 욕망의 재개: 정연희, 『목마른 나무들』
4. 고통의 분열과 무지의 파악불가능성: 박경리, 『노을진 들녘』
5. 결론: 재현(불)가능성으로서의 혁명

## 1. 서론: 젠더화된 혁명과 이중적 상처

1960년대 문학을 논함에 있어, '4·19혁명'<sup>1)</sup>은 하나의 지표로서 일컬어져 왔다. 특히 4·19를 직접 경험했고, 후에 4·19정신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이른바 '4·19세대'에 속하는 작가와 비평가는 압도적인 대표성을 차지했다. 예컨대, 김현은 “내 나이는 1960년 이후 한 살도 더 먹지 않았다.”<sup>2)</sup>라는 말로 자신의 세대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른바 ‘문지’ 그룹을 형성한 바 있다. 이와 대별해 백낙청, 김병익, 염무웅 등도 ‘창비’ 그룹을 구성해나갔다. 4·19세대 비평가들은 김승옥, 이청준, 박태순, 홍성원, 서정인 등<sup>3)</sup>과 같은 남성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하였고, 이들의 소설은

1) 본고는 기본적으로 1960년 3월부터 4월까지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정치적 사태를 가리켜 '4·19혁명' 또는 '4·19'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에 서울 남성 대학생 중심으로 사건을 의미화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지적(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4, 27면.) 또한 염두에 두고자 한다.

2) 김현, 「책머리에」,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김현 문학전집 7』, 문학과지성사, 1993, 13면.

3) 김현의 「소설은 왜 쓰는가-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서」(『월간문학』 1970년 3월호)에 직접 언급되어있는 작가들을 열거하였다.

4·19혁명에 대한 문학적 수용을 논하는 데 있어 지배적인 자리를 확보했다. 4·19는 역사적인 측면에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나타난 시기로, 정치·문화·경제적인 측면에선 근대성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 시기로 의미화되었다.<sup>4)</sup> 문학사적으로 전후문학의 허무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이 촉구된 계기였다. 하지만 1960년대 문학사를 4·19로만 환원하는 태도, 즉 4·19세대를 중심으로만 구조화하는 작업은 당대 존재했던 다양한 작품들을 독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sup>5)</sup>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4·19와 5·16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연구, 4·19를 6·25와 연관 지어 파악하는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한편, 기존의 문학사에서 4·19를 특권화하는 태도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 뿐 아니라 당대 여성 작가들을 유독 배제하는 효과 또한 불러일으켰다. 권보드래가 지적하듯, 4·19는 젠더화된 혁명이었다. 즉 혁명의 주체로 소환된 이른바 ‘젊은 사자들’은 사실상 남성 젠더만을 치칭하였던 것이다.<sup>6)</sup> 이렇듯 4·19정신을 계승하는 남성 중심의 문학적 의식이 부각함에 따라 1950년대까지 약진했던 여성문학은 점차 소외되었다. 1960년대 활동한 여성 작가의 소설은 1950년대 전후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거나,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되었던 것이다. 이에 1960년대 여성문학 연구는 기존의 문학사 기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대 여성 작가들의 소설을 새롭게 읽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다. ‘여성 로맨스?’<sup>7)</sup>, ‘사랑 서사’<sup>8)</sup>, ‘여성의 목소리’<sup>9)</sup> 등 미학적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근대성을 젠더 정체성

4)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255면.

5)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155면.

6)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484-485면.

7) 김복순, 「산업화의 최종심급과 재현의 젠더: 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7, 한국현대문학회, 2009.

8)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사, 2006.

9) 손혜민, 「연애대중과 소설 -1950-60년대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과 연결해 규명<sup>10)</sup>하고, 여성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담론 등을 분석<sup>11)</sup>하는 것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문학사에서 4·19혁명 자체가 주로 남성 작가들의 소설을 중심으로 담론화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젠더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즉 어떤 식으로든 4·19를 경험하고, 재현하고, 기억하는 여성 서사에 대해선 접근하지 않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다. 1950년대 전후의 인식에서 벗어나 4·19혁명을 맞이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분명 혁신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4·19정신이 “시민의식의 가능태”를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발견”과 “의식의 전환” 등 문학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sup>12)</sup> 하지만 그 의미가 남성이라는 젠더를 중심으로 “세대교체의 필연적 당위성”<sup>13)</sup>에 입각하여 규정되었던 만큼,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여성의 자리가 삭제되었음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당대 여성 작가의 소설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을 비롯한

2020.

- 10)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년도순) 박정애, 「군사주의와 개발주의하의 여성문학 -폐허에서의 생존 전략-」, 『우리문학연구』 15, 우리문화회, 2002.; 이정옥, 「경제개발총력진시대 장편소설의 섹슈얼리티 구성 방식」, 『아시아여성연구』 4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3.; 이명귀, 「60년대 여성 소설에 나타난 몸과 근대성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5.;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토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등.
- 11)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년도순) 임지연, 「매체와 여성 문학, 여성 문화: 1960년대 초반 잡지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 -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회, 2011.; 최경희, 「1960년대 여성지를 통해 본 '교양의 레짐' 연구 -『가정생활』, 『여성』, 『여원』에 나타난 전통, 국민, 감정의 동원 체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8, 우리문화회, 2015.; 김지영, 「'명랑성'의 시대적 변이(變移)와 문화정치학 -통속오락잡지 『명랑』의 명랑소설(1956-1973)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8, 민족어문학회, 2016.; 김양선, 「취향의 공동체와 소녀들의 멜로드라마 -잡지 『여학생』 소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24(1), 대중서사학회, 2018.; 이선옥, 「196, 70년대 잡지 『여학생』 특집 연구-감정의 재배치와 국민만들기」,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등.
- 12) 김지미, 「4·19의 소설적 형상화」, 『한국현대문학연구』 13, 한국현대문학회, 2003, 385-388면.
- 13) 김주현, 「'의거'와 '혁명' 사이, 잊힌 여성의 서사들」, 『혁명과 여성』, 선인, 2010, 160면.

주변화된 존재들의 경험 및 인식 역시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4·19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여성 작가의 소설을 ‘여성 서사’라는 계열화를 통해 접근해봄으로써 혁명을 남성(성) 중심의 표상으로만 의미화해 온 문학사를 재구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여성 서사’란 ‘여성’인 작가가 쓴 작품이라는 점에서 남성 작가의 소설보다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뤘거나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는 본질주의적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여성’이라는 범주 역시 고정적이고 단일한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교차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실천적인 위치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억압이나 불평등 역시 하나의 정체성에만 국한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력 구조들이 서로 맞물림으로써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4)</sup> 즉 여성 억압 또한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 민족 등 다양한 기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여성 서사란 경험의 구체성과 역사성을 감안한 채로 “여성의 삶에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이성과 감성, 문화와 자연 등과 같은 이분법적 ‘구분’을 무너뜨리고,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텍스트<sup>15)</sup>를 칭한다. 이에 여성 서사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단순히 텍스트 내 여성 인물에 주목하여 작가가 구현한 여성(성)의 주체성을 고찰하는 데에만 국한될 수 없다. 여성 서사를 읽어내려는 시도는 규범성을 구성하는 폭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주변화된 존재들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정상성에 들어맞지 않는 수행적 실천들을 예각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1960년대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혁명의 재현을 ‘이중적 상처’<sup>16)</sup>와 ‘고통(pain)’이라는 ‘정동

14) 한우리 외 3명, 『교차성x페미니즘』, 여이연, 2019, 7-8면.

15)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4-58면.

16) ‘이중적 상처’는 웬디 브라운의 용어에서 착안한 분석 개념으로, 브라운은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탄생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는 가운데 ‘상처 입은 애착(wounded attachment)’이라

(affect)<sup>17)</sup>의 맥락에서 포착해본 뒤 그 양상을 종합하여 ‘4·19 여성 서사’라는 하나의 범주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는 문학사적으로 정작 4·19를 중심 소재로 다룬 작품이 드물다는 판단<sup>18)</sup>에도, 당대 남성 작가의 작품이 ‘4·19정신’, ‘4·19세대’, ‘한글세대’ 등과 같이 집단적인 맥락 속에서 망라되며 혁명을 계승 혹은 의미화해왔다고 평가되었던 것에 대한 반문이 될 수 있다. 당대 여성 작가들 역시 한국문학 장 및 여성문학이라는 집합적

는 용어를 내놓는다. 제도화된 자유주의는 형식상으로 유사한 개인들로 구성된 시민들을 상정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특수성을 배제한 추상적 개인을 상상함으로써 결국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정체성을 규범화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한다. 이러한 규범 속에 억압된 주체는 고통의 정동을 느끼고 이 과정에서 ‘르상티망’이라는 파토스가 새겨 넣어진다. 웬디 브라운은 이를 상처에 고착화된 상태, 즉 ‘상처 입은 애착’이라고 지칭한다. (Wendy Brown, “Wounded Attachments”, *States of injury: Power and Freedom in Late modern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본고는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규율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청년 남성 주체가 자신들의 억압된 정체성을 정치화하고자 부정의 경험에 친착함에 따라, 즉 상처에 애착함에 따라 여성과 같이 또 다른 주변화된 자들의 억압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중적 상처’라는 용어를 새로이 개념화한 후 사용하고자 한다.

- 17) ‘정동’은 다양한 여러 학문 분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개념이기에 하나의 의미로 환원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마수미는 스피노자를 경유한 들뢰즈의 개념을 가져와 감정을 “고정된 의미와 내용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정동을 “아직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은 감각의 유예 상태”로서 신체적 변이와 이행을 촉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본고는 정동을 감정, 느낌, 정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서 “이성과 감성, 주체와 대상 사이의 구분에 저항하면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읽어내려는 시도”로서 의미화하고자 한다. (허성원, 「페미니즘의 퀴어정동정치를 향하여: 독해실천으로서의 퀴어정동이론」, 『한국여성학』 35(2), 한국여성학회, 2019, 80-81면.) 이러한 정동 개념은 주로 페미니즘 및 퀴어 이론에서 전개된 것으로서, 정동과 감정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감정에 관한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정동들 사이에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정동들이 어떠한 나름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엘스페스 프로빈,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수치의 쓰기」, 『정동이론』, 갈무리, 2015, 131면.) 본고에서는 상처에 수반되는 고통의 정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서술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정동 개념을 사용한다.
- 18) 이는 “4·19 문학의 불모성”, “4·19 문학의 부재”, “4·19 문학의 불가능성”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들은 “4·19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에 대한 온당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힘들며, 실제로 작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린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선형적인 견해에 기반을 두고 내린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김지미, 앞의 글, 390-391면.

인 흐름 속에서 4·19를 역사적 사건으로서 형상화하고, 후일담 형식으로 기억하고, 총체적인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명을 서사화<sup>19)</sup>했던 것이다.

특히 1960년대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는 4·19혁명을 기점으로 ‘상처’와 ‘고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정치화된 정체성(politicalized identity)<sup>20)</sup>이 구성되는 과정이 재현되고 있다. 이는 1960년대에 실제로 혁명을 둘러싸고 전개된 현실이기도 했다. 한국 사회는 4·19혁명 이후 개인의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어진 5·16쿠데타로 근대화와 반공주의 담론이 대두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이때부터 4·19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었는데, 혁명 직후에는 대중의 불규칙한 폭발력이 숭고한 이념으로 드높여진 경우가 많았다.<sup>21)</sup> 이 과정에서 4·19혁명의 주체는 ‘청년·남성·지식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이미지화되었다. 즉 4·19가 흔히 모더니티를 위시한 신지식인층으로서의 남성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삼아 신화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sup>22)</sup>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대학생의 집단행동은 존재하였고, 이는 이승만 하야 성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대학생 내부에는 당연히 여성 대학생 집단이 자리하고 있었

19) 실제로 1960년대 들어 활발히 활동한 여성 작가 대부분이 4·19를 직간접적으로 다루었지만, 이러한 문학적 성취는 거의 언급된 바 없다. 한무숙의 「대열 속에서」(1962), 송원희의 「혈흔」(1968) 등 여성 작가의 단편소설은 주로 혁명의 현장에 초점을 맞춰 그 순간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거나 의미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여성 작가의 장편소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본고에서 다룬 강신재, 정연희, 박경리의 작품과 같이 4·19를 기점으로 혁명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서사화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손장순의 『한국인』 등과 같이 후일담 성격을 지닌 서사로서 4·19 이후의 시대상을 다루거나 혁명에 관한 담론에 얽힌 상황을 재현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세 가지로 다각화된 1960년대 여성문학의 양상을 종합해 나가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논의의 발단으로서 혁명의 전 과정을 다룬 여성 장편소설에 주목한다.

20) Wendy Brown, *op. cit.*, p.74.

21) 권보드래·최정환, 앞의 책, 28면.

22) 소영현, 「대학생 담론을 보라 4·19정신의 소유권에 관한 일고찰」,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207면.

으며, 10대들, 노동자들, 도시빈민 등도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한 혁명 세력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근대화라는 과제를 앞둔 한국 사회는 국가적 사명을 이끌어갈 상징적 존재를 필요로 했고, 이에 그간 고립되고 분산되었던 ‘청년-남성-지식인’ 집단이 새로운 근대적 주체로서 대표성을 띠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와 분단 상황을 넘어설 각종 전망이 모색되는 시기는 1년 남짓에 불과했다. 4·19에 대한 기대가 혼란에 대한 불안으로 전환되며 “4·19정신”마저도 이내 “의문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결국 5·16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sup>23)</sup> 그리하여 이전까지 혁명의 주체로 호명됐던 청년-남성-지식인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진다. 이제 혁명의 주체는 오로지 쿠데타 세력이어야만 했으므로, 청년-남성-지식인은 본래의 자리인 학업으로 돌아가 훗날의 국가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구받았다. 담론적으로 4·19혁명의 대표적인 구호였던 ‘자유’가 비판받기 시작했다. 쿠데타 세력이 경제개발 정책을 내세우며 ‘번영’을 약속함으로써 ‘자유’보다는 ‘후진성’<sup>24)</sup>으로부터의 탈피가 가장 시급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이로써 4·19혁명은 당대 청년-남성-지식인 주체에게 ‘고통’의 정동을 불러일으키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자리 잡게 된다.

한편, 여성’들은 혁명의 주체로조차 소환되지 못함으로써 ‘이중적 상처’를 입는다. 당대 여성들은 혁명의 좌절을 느끼면서도 남성 중심적 사회로 편입돼 계급적 특권을 누림으로써 정치적 보수주의를 체화하거나 가부장제적 시선을 일면 내면화<sup>25)</sup>하지 않는 한 젠더화된 세대교체라는 흐름 속

23) 신형기, 「4·19와 이야기의 동력학」,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314면.

24) 공임순은 ‘후진성이 “한국 사회의 탈(脫)빈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수록, 그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비판된 것들”이라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후진성은 한국 사회가 지닌 부정적 현실의 척도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5·16쿠데타의 혁명공약 제4조에서 후진성이 부정성을 매개하고, 자립이 긍정성을 담보하는 “상호 모순적인 규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임순, 「1960-70년대 후진성 테제와 자립의 반/체제 언설들: 매판과 자립 그리고 ‘민족문학’의 함의를 둘러싼 헤게모니적 쟁투」,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79면.



에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다. 이어진 5·16쿠데타 이후론 성별 역할이 강화되고, 핵가족이 급속도로 보편화됨에 따라, 당시 여성 청년 일부는 학력 자본을 소유하였음에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힘들었으며<sup>26)</sup>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상화와 서구적인 교양을 습득하여야 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사적 영역인 가정에 배치돼 내조하는 아내 혹은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sup>27)</sup>을 요구받았다. 이렇듯 한국적 현실에서 여성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선 후면 혹은 심층에서 가부장제를 감시하고 교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8)</sup> 그러므로 1960년대 활동한 여성 작가들은 4·19혁명이라는 사건을 이른바 ‘4·19세대’와는 또 다르게 인식하고 재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당대 여성 서사는 ‘혁명의 실패’와 ‘주변화된 존재’라는 이중적 상처의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구현되었기에 기존의 문학사에서 삭제돼 온 여성으로서의 현실을 드러낼 뿐 아니라 미처 가시화되지 못한 남성 주체의 비(非)남성적인 수행까지도 포착해 낼 가능성을 담지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혁명을 총체적으로 재현한 1960년대 여성 장편소설에 주목하여 상처에 의한 고통의 정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한 뒤, 이에 대응해나가는 여러 양상을 살펴본다. 이 계열에 속하는 작품인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 박경리의 『노을진 들녘』은 혁명 이전, 혁명의 순간, 혁명 이후를 전부 다룬다는 점에서 4·19와 5·16이라는 사건의 연속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존재하던 다층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4·19혁명의 재현을 논하는 문학적 담론이 남성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기술되며 비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근대적 주

25) 박정애, 「규수작가의 타협과 배반」,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2006, 471-493면.

26)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91면.

27) 송인화, 「1960년대 『여원』 연재소설 연구 -연애담론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3-5면.

28) 박정애, 앞의 글, 471-494면.

체로서의 남성(성)을 재건하기 위한 토대로 타자화했다면, 당대 여성 작가들의 소설은 혁명을 젠더화된 표상으로 인식함으로써 대문자 ‘남성’ 역사에 가려 읽히지 못한 다양한 욕망과 실천을 탐구한다. 그리고 이어진 5·16으로 인한 혁명의 상처를 막연히 극복하거나 봉합하기보다는 어떠한 힘들이 조율되고, 규제되고 있는지를 질문해나감으로써 마주한다. 그리하여 ‘4·19 여성 서사’는 혁명을 또다시 청년-남성-지식인과 같은 특정 젠더의 소유물로만 전유하거나 단순한 권력관계의 역전만을 추구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정치적 주체의 존재를 포지함과 동시에 단일하고 고정적인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항대립적이고 규범적인 체계 모니를 탈구축하고자 한다.

## 2. 고통의 애착과 배치의 무효화<sup>29)</sup>

: 강신재, 『오늘과 내일』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1967)<sup>30)</sup>은 3·15부정선거부터 4·19혁명을 거쳐 이승만 하야 후 5·16쿠데타까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 군상을 조명하고 있는 소설이다. 특히 여성 인물인 ‘매지 마누라’와 그의 셋째 아들인 ‘영택’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첫째 아들 정택과 둘째 아들 만택, 딸 난경, 손자 복이, 영택의 친구인 윤미와 준호, 준호의 아버지인 김도훈 의원, 예 집사 일가, 복덕방 신가 등 20여 명의 인물들 역시 전체적으로 고르게 서사화된다. 소설 초반부는 투표소 현장, 이승만 당선, 마

29) 이 장은 2017년 10월 21일 개최된 제52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 학술대회 <작가란 무엇인가-세계문학, AI, 시장, 제도, 젠더>에서 발표한 「1960년대 여성작가의 4·19 형상화 및 인식 연구」의 일부 내용을 ‘여성 서사’와 ‘정동’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초점을 맞춰 발전시킨 것이다.

30)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은 펜클럽작가기금에 선정된 후 창작돼 곧장 을유문화사가 발간한 현대한국신작전집에 속하는 단행본으로서 출간되었다. -강신재, 『현대한국신작전집 4오늘과 내일』, 을유문화사, 1967. 이하 인용문에는 면수만 표기한다.

산 의거, 김주열 희생 등을 통해 3·15부정선거가 일어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소설 중반부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4·19에 참여하는 과정을 주되게 그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선 이 소설은 4·19에 참여하는 다양한 여성들<sup>31)</sup>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지 마누라는 뚜렷한 정치적 소신이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특유의 호기심 때문에 이곳저곳을 누비며 4·19 직전까지의 주요한 상황을 대부분 경험한다. 그의 자녀들이 전부 다른 계층에 속해 있기에, 매지 마누라는 “항간의 분위기나 젊은이들의 토론 같은 것조차 경청하며 모든 것을 잘 명심”(16면)하느라 항상 분주하다. 첫째 아들 정택은 이승만 정권의 순경, 둘째 아들 만택은 반공청년단, 셋째 아들 영택은 대학생이며 딸 난경은 6·25때 신랑이 죽어 현재는 돈을 벌기 위해 미군 부대를 드나드는 상황이다. 따라서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며 모든 일에 참견하는 게 버릇이 된 매지 마누라는 4월 19일 당일에도 서울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혁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서사는 혁명의 현장을 관찰하는 동시에 무심결에 혁명의 대오에 합류하는 여성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4·19 당시의 혼돈뿐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던 다양한 주체의 양상을 포착한다.

한편, 소설에서는 일찍이 의식을 가지고 독재 정권과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하여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 대학생이 등장한다. 4·19를 다룬 1960년대 소설 대부분이 여성을 혁명과는 무관한 인물로 그린 것과 달리 강신재 소설에서 ‘윤미’는 남성 대학생인 영택보다도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혁명을 준비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윤미는 여대 학생회 활동을

31) 김주현은 실제 4·19에 참여했던 많은 여성들을 3·15에 참여했던 여성들에 기반을 두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 바 있다. 첫 번째는 데모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룹, 두 번째는 여학생-엘리트 그룹, 세 번째는 윤락 여성들이다. (김주현, 앞의 글, 159-188면.) 이 세 그룹은 소설 속에서 4·19에 참여한 영택의 안위를 걱정한 매지 마누라, 여대 학생회 일원으로서 데모를 주도한 윤미, 만택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다가 4·19가 터지자 그를 돕기 위해 헌신한 옥자와 묘하게 겹쳐진다고 볼 수 있다.

하며 “쾌활”(76면)하면서도 동시에 “이성적”(78면)으로 학생운동을 기획하는 인물이다. 윤미가 속해 있는 학생회는 이미 마산에서의 상황을 주시하며 “매일 공부도 할 수 없을 지경으로”(79면) 혁명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우리대로 생각이 있어서, 혹시 어떤 행동으로 나가기를 결의한다 하더라도 무슨 정당의 공작 같은 것의 영향은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익과 일치점이 있다 해도 그건 일단 다른 문제죠. 동기를 혼탁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곤란한 건 매수당한 일부 남자 대학생 등이 끈질기게 밀고 나오며 강요하듯 하는 일입니다.”(79면)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윤미는 오히려 “동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매수당한 일부 남자 대학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혁명의 방향성을 숙고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서사에 여학생 엘리트 그룹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은 당시 혁명의 현장에 여성 청년 주체가 존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십 구일 아침 ... 길을 메운 여학생의 행진이 의주로 쪽에서 남대문을 돌아가고”(121면) 있었다는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즉 서사에서 혁명의 현장에 대한 묘사는 결코 청년-남성-지식인에게만 할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4·19 이후에는 혁명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과 달리 치명적인 외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미가 시위 과정에서 다리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이렇듯 윤미가 장애를 갖게 되자 그때부터 서사는 영택의 시선과 감정에 유독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영택이 갑자기 그녀를 “어째선지 무척 여자다운”(155면) 소녀, “나뭇잎처럼 얇은 느낌”, “머리털을 길게 늘인 요정”(234면), “유리상자 속의 인형”(247면)과 같이 타자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열정을 폭발”(78면)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던 윤미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모한다. 그리하여 영택과 동등한 위치

에서 토론을 벌이던 윤미는 이제 영택이 지켜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혁명 이후 여성은 남성의 환상이 덧씌워진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사는 표면적으로 4·19를 남성 중심으로 의미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론 4·19를 남성 주체의 역사로 환원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묘사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은 혁명 이후 낙인찍히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도리어 4·19에 대한 남성 주체의 신화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단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택이가 병실을 나갈 적에 이쪽을 본 윤미의 눈길은 또 처음에처럼 현실과 단절된 곳에 가 있었다. 거리로 나온 영택이는 내닫기 시작했다. 혁명이 왔는지, 중간에서 멈춰서고 말았는지, 그것은 윤미를 위해서도 어서 바빠 캐내어야만 할 일이었다.(157면)

분명 윤미는 4·19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영택, 준호와 함께 일종의 동지로서 혁명을 고대해왔다. 그런데 4·19가 끝나자마자 여성은 혁명 주체로서의 자리를 손쉽게 박탈당한다. 이제 “혁명이 왔는지, 중간에서 멈춰서고 말았는지”와 같이 4·19의 의미를 탐구하고 앞날을 모색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남성으로만 설정된다. 실질적으로 운동을 조직하던 윤미는 혁명 이후 장애를 얻었다는 이유로 “현실과 단절된 곳에 가” 있을 뿐이다. 이는 4·19 이후, 여성의 결속을 사회·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단 부적절한 열정이 표출된 것으로 간주하던 당대의 분위기<sup>32)</sup>와도 일치한다. 혁명 이후 찾아온 혼란을 빠르게 소거해나가기 위하여, 즉 국가 수립을 도맡을 주체가 긴급히 요구됨에 따라 청년-남성-지식인 주체만이 역사의 주역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책임지지 못

32)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490-505면.

했다는 평가가 점차 만연해짐에 따라<sup>33)</sup> 혁명의 기억은 상처로 남게 된다. 남성 주체는 실패한 혁명일 수도 있다는 불안을 은폐해나가고자 했지만, 쿠데타 세력이 등장하여 새로운 주체를 자치함에 따라 결국 혁명의 실패라는 상처를 입게 된다. 문제는 남성 주체가 단순히 상처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한 고통을 타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화한다는 점이다. 웬디 브라운에 따르면, 규율 권력에서 배제된 주체는 상처를 입는데 이 과정에서 상처에 대한 고통의 정동이 발생한다. 배제로 인한 상처를 입은 주체는 고통에 지나치게 애착함으로써, 즉 정동적으로 고착됨으로써 이를 압도할 분노를 생산하고자 한다. 상처를 대체할 수 있는, 즉 자신의 고통을 재분배할 수 있는 비난의 대상을 찾아내고, 그 대상에 상상적 복수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구성하려 든다는 것<sup>34)</sup>이다.

그리하여 강신재 소설 속 남성 주체는 혁명 이후 여성 주체를 “불구”(237면)로 고정함<sup>35)</sup>으로써 고통을 전환하고자 한다. 정작 청산되어야 할 대상인 기득권 세력 대신 여성을 순종적이고 안전한 대상으로 치환함으로써 혁명이 불러일으킨 좌절감을 떠맡기는 것이다. 이는 윤미에 대한 외양 묘사가 변화하는 것에서도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4·19 이전까지 “새까만 여대생”(39면)이라고 불릴 정도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

33) 이시성, 「4·19 소설의 주체 구성과 젠더 양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99면.

34) Wendy Brown, *op. cit.*, pp.66-74.

35) 여성을 ‘불구’로 등치하는 것은 가부장제에서 여성을 결합 있는 존재로 타자화하기 위한 은유로써, 즉 지배 담론의 통치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인종, 여성, 퀴어, 이민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성을 “병리화”라는 낙인을 통해 전부 혐오의 대상으로 치환할 뿐 아니라 “장애란 본질적으로 열등하고 결합 있고 부정적인 것”이라는 전제를 승인함으로써 소수자성 안에서 “서로 반복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상성 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하여 장애 신체에 대한 “병리화”를 “목인”하고 “재생산”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 억압의 형상화를 규명할 때는 다양한 억압의 축을 함께 살피는 교차적인 시선을 계속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혜은,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기」,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여이연, 2018, 30-31면 참고.

던 윤미는 혁명 이후 갑자기 “창백”(136면)하게 인식된다. “영택이 쪽에서 그녀의 인간다움을 그렇게 잘라내던지고, 시각의 일면에만 강점을 두어둔 탓”(204면)이라는 서술에서 나타나듯, 윤미에 대한 영택의 대상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에서 남성 주체는 혁명에 참여했던 여성 주체를 타자화함으로써 혁명의 상처에 대한 애착을 투사하고 책임의 전가를 실행한다. 이를 통해 미완의 혁명이 불러일으키는 고통의 정동에서 벗어나, 지배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청년-남성-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견고하게 수립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화된 정체성의 실현가능성은 윤미의 자살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론으로 저지되고 만다. 윤미가 영택에게 자신의 속내를 철저히 숨긴 채 급작스럽게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영택은 “상체만 나타내는 인어”(236면)에 국한돼야만 했던 윤미가 자신 몰래 다시 목발을 짚고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낀다. 윤미는 영택 앞에서 늘 “유리 상자 속 인형”(237면)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가 모르게 열심히 재활 운동에 전념해 온 상태이다. 심지어 윤미는 목발이 “병실 한구석에 기대 놓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하”(236면)게끔 미리 조처할 정도로 장애가 있는 신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 이 과정은 여성 인물의 직접적인 행위으로써 묘사되지 않고, 남성 인물이 뒤늦게 윤미의 보호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어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서사화된다. 따라서 영택은 윤미가 자신 몰래 삶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몸이 굼뜰할만큼 충격을”(236면) 받는다.<sup>36)</sup>

36) “윤미가 어떻게 해서 그 자신을 극복하였든 간에 그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지금 영택의 앞에는 영택이 스스로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 그에게는 현실감이라고는 통 없는 요정 같은 윤미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감미로웠고 편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쪽으로만 끌리는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즈음의 그에게는 스커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보통 여자애들이 어쩐지 픽 속물스럽고 역겨웁기조차 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일이, 그의 기분을 증명하고 있었다.”(236-237면)

현재의 상태에 도취된 남성 주체가 자신의 고통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이 여성 주체는 남성 주체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상처만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남성 주체와 달리 여성 주체는 타자에게 복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통의 정동을 전환하기 위하여 분투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택은 갑자기 그런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237면)라고 스스로 반문하기 시작한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윤미를 두고는 결혼을 염두에 둘 정도로 사랑한다고 외치던 영택이 윤미가 마비된 다리로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난데없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사는 지배 권력에 대항하고자 구축됐던 청년-남성-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르상티망(ressentiment)과 같은 반동적 파토스<sup>37)</sup>에 취약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소설은 혁명 이후 ‘청년-남성-지식인’이라는 정치화된 정체성이 상처를 되돌려줄 수 있는 대상을 생산해내지 않는 한 결코 유지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즉 청년-남성-지식인 주체가 결코 홀로는 완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4·19 이후 신화화됐던 남성성이 은폐하는 비남성성의 지점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윤미의 자살 또한 단순히 헤게모니 투쟁에 따른 실패를 상징하지 않는다. 여성 주체는 현실적으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만 자신의 주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 주체는 미완의 혁명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남성 주체와는 달리 혁명의 주체로조차 호명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중적 상처’를 입고 고통의 정동을 느낀다. 하지만

37) 웬디 브라운은 니체의 ‘르상티망’ 개념을 차용하여 정치화된 정체성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여기서 르상티망이란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사회환경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정신”에 사로잡힌 원한 감정을 뜻한다. 즉 힘없는 사람들이 “원한 맺힌 자기혐오”로서 도덕적 복수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르상티망은 감정 경험의 만성 상태에 이르러 이를 해소하지도 못하는 무력감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보인다. -권정기, 「르상티망」, 『철학과 현상학 연구』 61, 한국현상학회, 2014, 65면.



여성 주체는 자신의 상처를 타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고통을 전치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현재의 배치 자체를 무효화한다. 영택은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윤미를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멋대로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다가 이내 인정하기로 하지만, 영택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자마자 윤미는 영택에게 자살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즉 영택이 “네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네가 필요해”(237-8면)라고 결정한 것이 무색하게끔, 윤미는 보란 듯이 타자화를 벗어나는 결론을 내린다. 이로써 남성 주체는 영원히 상처에 고착된 채 남아 있지만, 여성 주체는 남성 주체가 떠갈진 혁명의 오점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듯 『오늘과 내일』은 혁명이 남긴 상처와 이를 토대로 구성된 정치화된 정체성을 비트는 여성 주체를 틈입시킴으로써 혁명을 새롭게 사유한다. 혁명이 사랑을 통과하는 과정은 남성 인물의 시선과 감정에 초점을 맞춰 전개되지만, 실은 여성 인물이 가면을 쓴 것처럼 행위하고 있었다는 서사적 반전이 일어남으로써 남성 주체의 인식은 무효화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듯 죽음을 통하여 강요된 배치를 배반하는 여성 주체의 수행성은 혁명의 미래를 짚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성 또한 혁명의 당사자였고 혁명 이후를 책임지고자 하였음을 드러낸다. 이는 당대 여성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윤미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청년-남성-지식인의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데 일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혁명의 좌절을 다른 방식으로 재정위하려고 했던 여성 주체를 강조하는 효과 또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강신재 소설에서의 4·19혁명은 젠더적인 차원에서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서사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의 결말 또한 단일하게 의미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늘과 내일』은 혁명의 상처를 상징하는 윤미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4·19의 “숭고한 의미”만을 드높인 다음 이후 들어선 “군사정부에 대한 기대감까지 담고 있다”고 평가된 바 있다.<sup>38)</sup> 하지만 서사는 혁명 이후를

결코 영택의 시선에서만 조명하지 않는다. 혁명 이후 매지마누라는 첫째 아들 만택과 둘째 아들 정택 모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단번에 어느 만큼 기운을 회복하고 이튿날부터는 또 산지사방으로 나돌아다니기를 시작”(226면)한다. 여전히 이곳저곳을 산책하며 소문을 수집하고 현재를 감각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영택의 형 만택과 사실상 관계였던 옥자 역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하여 애를 쓴다. 당장 집안의 쌀독부터 빈 실상을 자각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매지마누라나 옥자의 존재는 윤미로 대표되는 지식인 여성과는 또 다른 위치성을 가진 여성 주체를 표지한다. 심지어 서사는 매지마누라의 손자인 복이의 눈에 비친 혁명 이후의 모습까지도 상세히 묘사한다. 가출하여 무작정 돌아다니던 아이의 눈에 혁명 이후는 “시민대중”부터 “훨씬 나이 어린 중고등학생들”까지 “노여움과 슬픔”으로 “미친 듯 흥분해” 있는 “사나운 강물처럼”(208면) 보인다.

이렇듯 서사에 끊임없이 투입하는 다양한 위치성은 혁명이 청년·남성·지식인 주체만의 의지와 좌절로 의미화되는 것을 교란한다. 그렇기에 소설 후반부에 영택 역시 군사 정부가 “조속한 처단”(253면)을 내리는 것이 일면 부패한 과거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괴하고 환상적인 느낌으로 사람의 죽음을 채색”(259면)하는 것을 경계하며 “전체 인간에 대한, 자기도 포함한 그 자체에 대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259면)을 느끼는 것이다. 이로써 혁명은 모순된 것들이 한데 있는 ‘오늘과 내일’로서 존재하게 된다. 결국 서사는 4·19를 실패한 혁명 혹은 남성 주체의 세대교체 등 단 하나의 특정한 의미로 환원하지 않는다. 이제 4·19는 그저 끊임없이 현재를 숙고하게끔 만드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기표로 남아 있다. 혁명이란 여러 시선과 언어를 통과하는 가운데, 즉 서로 다른 신체들의 끊임없는 이행과 번역<sup>39)</sup> 속에 기존의 배치를 어그러뜨

38) 이시성, 앞의 글, 52면.

39) 사카이 나오키, 신현아 역, 『정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364-374면.

리며 역동적으로 연속되는 것이다. “내일을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아마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오늘에 관해서 뿐이었다.”(232면)는 마지막 서술처럼 소설 속에서 4·19는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기에 행동해야만 하는 ‘어제’가 아닌 ‘오늘’로서 계속 유효하게 사유된다.

### 3. 고통의 이상화와 욕망의 재개

#### : 정연희, 『목마른 나무들』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1963)<sup>40)</sup>은 휴전된 지 6년이 지난 1959년 서울을 명시한 채 시작하여 ‘서주연’이라는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4·19혁명을 거치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이 소설은 단행본 출간 직후 1964년 판매율 1위를 기록<sup>41)</sup>하고 혁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영화화<sup>42)</sup>까지 되었으나, 여성지에 대중소설로서 연재된 데다 여성 인물의 감정이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4·19를 형상화한 소설로는 거의 평가된 바 없다. 하지만 이 소설 역시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과 흡사하게 1960년대에 청년-남성-지식인의 정치화된 정체성이 구축되는 양상을 가지화하고 있으며, 미완의 혁명이라는 상처가 남긴 고통의 정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회해나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공황이 지배적인 가운데 문화부 기자로 막 신문에 입사한 주연은 명문 여대 수석 졸업생으로서 대

40)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은 1961년부터 『여원』에 연재된 후 1963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정연희, 『정연희 전집 1-목마른 나무들』, 수필과비평사, 2016. 이하 인용문에는 면수만 표기한다.

41) 「봄이 와도 풀리지 않는 서점가」, 『경향신문』, 1964.03.12.

42) 「내30일에 호화로운 시상식」, 『조선일보』, 1964.11.17.

학교수, 신문사 사장, 문화부장 등 모두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지식인 여성이다. 하지만 전쟁을 겪으며 부모를 잃은 탓에 친아버지의 선배 목사인 오씨 일가에 맡겨짐에 따라 사실상 유년기부터 ‘오성우’의 약혼자로서 성장했다. 성우는 주연을 “사랑스러운 아가”라고 부를 정도로 지극히 아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17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성우의 여동생 오성희 역시 주연을 보호자처럼 돌봐왔기에 주연은 “외로움”에 휩싸이는 것조차 “오씨 가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일”(17면)이라고 판단할 만큼 감정마저 그들에게 위탁한 상태이다. 성우는 “강제나 강압을 느낀다면” 언젠는 “자유”를 찾아 “인생을 마음껏”(17면) 누리라고 말하지만, 주연은 그것조차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스로 길들여져 있다. 이렇듯 주체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던 여성 인물은 자신도 모르게 ‘김재훈’이란 남성 인물에 끌리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서사는 주연의 변화 과정을 4·19혁명이 일어나기까지 1여 년 동안 벌어지던 여러 정치적 사건과 맞물려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주연은 1958년 5월 2일 제4대 민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45면)이 좌절됨에 따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같은 신문사 기자인 재훈과 처음으로 함께 취재를 나갔다가 “일순 몽롱(48면)”해질 만큼 미묘한 설렘을 느낀다. 그런데 재훈을 향한 주연의 감정은 심화할수록 성우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법을 어기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재현된다. 주연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었던 성우는 거역하기 힘든 필연적인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기에 그와의 약혼을 배반하고 억압된 섹슈얼리티를 발현하는 것은 자기의식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인 것이다. 그렇기에 주연이 자신을 “뜨겁게 달구는 그 불길이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식별할 힘도 없”(83면)을 만큼 강렬한 욕망에 휩싸일수록, 성우는 주연을 “어떤 일로도 빼앗길 리 없다는 신념”(89면)을 내보이며 상징적 질서로서 굳건히 군림한다.

민의원 총선거 이후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몇몇 지구는 재

선을 치르기로 결정하는데, 그때 주연은 다시 한번 성우와 재훈 사이의 선택지에 놓이게 된다. 성우가 재선 직후 미국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약혼자로서 도미 수속을 준비하던 주연에게 재훈이 재선 취재를 위한 지방출장 동행을 요청한 것이다. 주연은 밤새 고민한 끝에 재훈과 함께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하지만, 성희의 등장으로 재훈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서사는 주연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춰 전개함으로써 리비도의 집중과 혁명의 도래를 점진적으로 겹쳐놓는다. 주연은 성우가 아버지처럼 인자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규범으로서 자신을 장악하는 것에 비례하여 자신의 욕망을 금기의 영역에 놓음에 따라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재훈과도 갈등을 겪고 방황하는 것이다. 현 정권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짐에 따라 “좀체 수습이 되지 않던”(122면) 혼란스러운 현실 역시 모든 가능성이 폐쇄된 상태인 주연과 포개지며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단절된”(134면) 것으로 묘사된다.

결국 성우 혼자 미국으로 떠남에 따라 주연은 마치 절대적인 법을 어긴 것과 같은 죄의식에 시달린다. 주연은 취재차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았던 여자 죄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은 현실 감옥이라는 담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갇혀 버렸다”(139면)라고 곱씹기에 이른다. 이렇듯 규범으로부터 이탈함에 따른 죄의식은 당대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성적 담론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남성 중심적 질서가 도전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여성의 육체와 성에 대한 윤리적 규율의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sup>43)</sup> 그리하여 주연은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목마르게”(143면) 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근본적인 것은 전복시킬 수 없는 것”(145면)임을 상기하며 상징적 질서의 폭력에 침전하기를 반복한다.

43) 송인화, 「정연희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과 여성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3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163면.

봄은 다시 꽃을 피우고 들뜬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지게 만들었다. 그 때까지도 주연은 향방 없는 나날에 얽혀 흘러갔다. 세상은 소란스럽기만 했다. 제4대 정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어지럽게 휘몰아치는 정국이며, 울근불근하는 민심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부정선거 규탄의 데모대는 대구에서 마산에서 노도처럼 일기 시작했고, 신문사마다 흥분과 흥분으로 긴숨을 몰아של 틈이 없었다... 그러나 주연은, 그런 질풍과 흥분 속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았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김재훈의 실체를 확인했으면서도, 그리움은 고질병처럼 서주연을 놓아주지 않았다.(276면)

3·15 부정선거를 지나 4월로 접어들자 위의 인용문과 같이 강제적 규범과 결핍된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던 주연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드디어 “이루어 보리라. 어떠한 사람의 비난도 질시도 냉소도 견뎌 내리라. 그리고 갈망했던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 것이다.”(281면)라고 다짐하며, 결여된 것을 탐구하려는 열망을 내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연은 “정말 그토록 재훈이라는 한 인간을 갈망하고 있는 걸까?”와 같이 반문하며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직시하고자 한다. “사월도 반이나 가버”린 시점, “어떤 계기만을 기다리고”(282면) 있던 주연은 이제 스스로 결핍의 기억을 확인하고자 한다. 서사는 여성 주체의 극적인 변화와 더불어 혁명을 예고하는데, 주연이 “오늘,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처럼” 재훈을 찾아 움직이는 사이 데모대가 “아수라장”(286면)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정성을 감추지 않기”(289면) 위한 약속을 재훈에게 받아내기로 결심한 날, 결국 혁명은 일어난다. 주연이 재훈을 만나기 위하여 길거리로 나섰을 때 경무대를 향해 집결하는 데모대의 행렬이 세종로를 전부 메우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 주체가 과잉된 정동에 휩싸이는 것과 더불어 혁명은 우발적인 역량으로써 분출된다. “흥분과 동지애로 얽힌 얼굴과 얼굴들”이 내뿜는 함성이 “노한 파도처럼 넘쳐나고 하늘로 치솟”(291면)음과 동시에 주연은 눈물을

흘리며 혁명의 대열을 비집고 들어간다.

어서 재훈을 만나 함께 있고 싶었다. 재훈이 취재를 하면 같이 돕고 그가 합성을 올리면 같이 올리고, 그가 절규하면 같이 절규하고 싶었다. 그렇게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대열은, 김재훈을 향한 그리움에 불을 붙였다.(291면)

소설은 민중이 다양한 양태로 군집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억압된 질서로부터 탈주하려는 여성의 욕망과 혁명에 내재한 폭발적인 힘을 병치한다. 주연은 욕망을 분출하는 가운데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혁명의 인파에 휩쓸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서사는 4·19혁명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면서도 그 순간에 남성 인물의 모습만은 등장시키지 않는다. 혁명의 흐름에 우연히 가담하게 되는 여성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주연은 “자유와 정의를 쟁취하려던 젊은 피가 땅을 적”시는 것(296면)을 마주하면서 재훈의 흔적을 쫓는다. 그러나 끝내 남성 주체는 혁명의 역동적인 힘으로는 재현되지 않은 채 마지막에 주검으로서만 모습을 드러낸다. 소설 초반부에 주연에게 “생동하는 생명”(72면)으로까지 인식되었던 재훈이 대열에서 총탄을 맞아 “눈부시게 흰 백포가 덮여”(297면) 있는 시신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혁명에 참여한 여성 주체가 결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을 역전한 서사처럼 보이지만,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은 혁명이 남성 주체의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함의를 지닌다. 강신재 소설에서는 여성 주체가 죽음을 통하여 청년-남성-지식인의 열정만이 정치적인 것으로 미화되는 과정<sup>44)</sup>에 투입하려 한다면, 정연희 소설에서는 혁명이 특정 주체의 숭고한 죽음을 상징하는 단 하나의 기표가 되는 것이다.

44)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235면.

이러한 서사는 피상적으로 4·19정신의 유일한 담지자로서 청년-남성-지식인을 호명하던 지배적인 헤게모니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성 주체의 고통이 개연성 없이 이상화되었다는 점은 이질감을 노출한다. 즉 젠더화된 혁명 주체의 고통만이 작위적일 만큼 순수한 것으로 윤색된다는 점은 오히려 고통과 같은 정동마저도 특정하게 선별되고 있는 1960년대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폭로한다. 따라서 재훈이 혁명의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사진기자의 말을 통해서 요약적으로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형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저 재훈이 바리케이드 맨 앞에 쓰러져 있던 청년을 구하기 위하여 “한순간” 달려 나갔고, 그때 “마지막 총알이” 재훈을 향해 날아갔다는 전언만이 “발광할 듯 통곡하는”(297면) 목소리를 통해 비극적으로 전달된다. 이는 당대 청년-남성-지식인 역시 이전까지 규율 권력에서 배제된 존재였다면, 혁명에서 기인한 고통의 정동을 통해서만 정치적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당시 청년-남성-지식인은 흔히 ‘문제소년’, ‘비행소년’, ‘범죄소년’과 같이 이유 없는 반항자 취급을 받았으나 혁명 이후 ‘젊은 사자들’, ‘청년 학도’, ‘신세대’ 등으로 추켜세워지며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sup>45)</sup>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 증명마저도 혁명 직후의 혼란과 이어진 5·16쿠데타로 인해 곧 탈정치화된 영역<sup>46)</sup>에 한정되어야만 했다. 결국 1960년대 청년-남성-지식인 주체는 혁명이 불러 일으킨 상처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의 유의미한 정체성으로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소설에서 재훈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처절했던 전쟁과, 가난, 조국이라는 곳”이 자행한 “불의와 기만”에 “스스로를 파괴해 가며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300면) 근대적 주체로서 의미화된다. 이는 청년-남성-지식인이 구성하고자 애써온, 즉 지배 체계에 저항하고 권리를

45) 소영현, 앞의 글, 206-207면.

46) 권보드래, 앞의 책, 74면.



확보하고자 정치화했던 정체성이 미래를 상상하기보다는 현재적 고통을 역사에 기입하는 데 그치고 말았음을 보여준다. 청년-남성-지식인 주체는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주체임을 입증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정체성이란 고통을 정치에 정착한 채<sup>47)</sup> 이상화하는 형태였던 것이다. 즉 이들이 가까스로 획득한 집단의 언어 역시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증명으로만 가능했다는 점에서 소설은 당대의 남성성 역시 일면 헤게모니적으로 상상되고 강요된 것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주연에게 혁명은 역시나 재훈과 같은 의미에서 고통으로써만 자신을 공표하게끔 만드는 상처이자 재훈의 죽음으로 상징화되는 사랑의 좌절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상처’로 남는다. 하지만 주연은 상처를 책임질 대상을 생산하거나 복수를 간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헤게모니에 대한 재종속화를 거부한다. 혁명이 불러일으키는 좌절감에 매몰되거나 혁명 주체로서 자신을 신화화하는 방식으로 나르시시스적 상처에 재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언어를 기존과 다르게 구성<sup>48)</sup>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연은 상징적 질서와 억압된 섹슈얼리티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재개하는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다. 상처에 의해 배제되었던 미래에의 욕망을 다시금 촉발하는 것이다.

이는 서사에서 주연이 자신의 욕망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설은 초반부부터 ‘이윤이’라는 여성 인물을 재훈과 동일선상에 배치한 바 있다. 윤이는 재훈의 옛 애인으로, 주연은 윤이의 정체를 몰랐을 때부터 그를 ‘시노레’라는 자기만의 별칭으로 부르며 매혹을 느낀다. 처음에 주연은 윤이가 재훈과 심상치 않은 관계임을 알아채곤 “질투”와 “기묘한 선망”(78면)이 뒤섞인 감정을 내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훈이 오히려 윤이와 함께 있음으로써만 자신에게 유의미한 존재임을 깨닫는다.<sup>49)</sup>

47) Wendy Brown, *op. cit.*, p.74.

48) *Ibid.*, pp.72-75.

49) “그는 재훈을 볼 때마다 시노레를 연상해 내며, 거의 흥분에 가까운 호기심으로 마음을 달게

주연은 자신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자기만의 뚜렷한 세계”(168면)를 지닌 윤이를 “닭을 도리가 없다”(257면)고 생각하며 윤이가 사는 건물로 거처를 옮기면서까지 관계를 맺으려 한다. 심지어 윤이가 재훈의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면서도 재훈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임신 중지를 반복하면서도 강박적인 모성에 시달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윤이 앞에서 “어린애가 되고… 응석을 피우러 들고”(244면) 싶을 만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주연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이끌어어나가는 독립적인 여성 주체로서의 윤이를 선망하는 것을 넘어 윤이와의 동일시를 욕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때문에 주연의 욕망이 단순히 재훈을 향한 낭만적 사랑에 국한되는 일원적인 것이 아니라 청산될 수 없는 동성애적 가능성에 대한 애도가 전제된 것임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여성은 주체 형성 과정에서 자아 동일성을 형성하기 위해 타자에 대한 이중 부정을 거치며 우울증적 합체를 이룬다. 즉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향한 최초의 애정이 부정당하자 이를 자아의 일부로 합체하면서 우울증적 동일시를 이루고, 이어진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근친상간 금지로 부정당함에 따라 젠더 정체성을 형성한다.<sup>50)</sup> 그리하여 여성의 젠더 정체성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동성애적 욕망과 그에 대한 금지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거슬러 깨달아가는 과정으로써 주연은 재훈이라는 타자를 통해 성우로 상징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거부되어야 했음을 인식하고, 이어서 윤이로 상징되는 어머니에 대한 동성애적 욕망이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결국 서사에서 여성 주체는 동일시의 욕망과 동성애적 친밀성을 통해 자신이 애초에 무엇을 금지당했는지, 무엇을 부정했는지, 무엇과 동일시를 이루고자

만들고는 했다. 그 여자를 배경으로 한 김재훈이 어쩐지 돋보였다. 그 여자는 김재훈의 매력 제일 조건. 그 여자가 떠오를 때마다, 주연은 이상하게도 재훈이 못 건디게 좋아졌다.”(85면)

50) Judith Butler, “Melancholy Gender-Refused Identification”, *Psychoanalytic Dialogues*, 5(2), 1995, pp.165-180.

했는지를 질문하며 자신에게 폐제되어있던 슬퍼할 수 없는 상실이자 청산될 수 없는 열정을 탐구한다. 이렇듯 여성 주체는 고통에 고착되는 우울증적 주체로 남지 않고 최초의 욕망을 떠올려냄으로써 상징적 질서를 반복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을 담지한다. 즉 자신에게 거부의 방식으로 내면화된 욕망이 무엇인지 끝없이 감각하는 데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연은 혁명 이후 재훈의 죽음을 “그는 스스로 떠나갔다.”(299면)고 받아들인 후 성우가 “상처를 아물릴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아내로서 살아갈 것을 제안하지만 결국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303면)음을 명확히 밝힌다. 소설에서 재훈으로 대표되는 청년-남성-지식인 주체는 자기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죽음을 통해 4·19정신의 담지자가 되었다면, 여성 주체는 욕망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여성에게 할당된 위치를 흔들어놓으려 한다. 그렇기에 소설은 처음부터 여성 주체의 정동적 변화와 혁명의 도래를 병치하는 방식으로써 서사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혁명을 멜로드라마의 흐름에 사건화하는 서사적 전략은 당시 연애 담론의 추상성에 현실의 뒤틀림을 더하려는 소설적 기법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는 숭고한 역사적 정의 대신 낭만적 사랑을 신화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51)</sup> 하지만 이러한 서사는 한편으론 혁명의 주체로서 소외되었지만, 상처에 애착하지 않고 욕망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회복을 도모하는 여성을 1960년대에 재현 가능하던 하나의 현실로서 승인하도록 만든다. 또한, 이러한 서사가 “여성 취향의センチ멘탈리즘”이라는 이유로 평가 절하<sup>52)</sup>되는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쓰이고 읽힘으로써 당대 여성 독자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임신 중지, 자립, 비혼 출산, 자기 결정권 등과 같은 새로운 행동 방식과 윤리관을 감각<sup>53)</sup>하게 된다.

51) 「지배에 스민 그날의 증언」, 『조선일보』, 1964.04.19.; 「4·19와 문학작품」, 『경향신문』, 1965.04.19.

52) 「질편한 여성용 '감상」, 『조선일보』, 1964.10.13.

따라서 소설의 결말에서 주연은 혁명 이후 재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성우의 청혼을 거절하며 “여성의 성장에 이런 갈등과 고통의 과정이 필수”(304면)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도, 욕망을 직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주연은 욕망의 기억을 회복한 상태에서 성우와 결혼해 현모양처로 사는 것은 “평생… 나의 죄의식”(305면)이자 자기“기만”(307면)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는 성우를 배웅한 뒤 혼자 남아 “그림자 안에 숨겨진 참 나는 누구인가?”(309면)라고 되묻기 시작한다. 이는 정체성을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나는 존재한다’와 같은 확정적인 발화문이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와 같이 결여된 것을 찾는 수행적인 발화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웬디 브라운은 이같이 ‘나’를 확인하는 질문이 다시금 배제로 인한 상처의 장소에서 주체성을 형성하기 이전으로, 즉 결여에 대해 미리 포기하기 이전의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언어라고 주장한다.<sup>54)</sup> 이는 앞서 버틀러의 논의에서 언급된 최초의 욕망이 부정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맞물린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주권적이지도, 결정적이지도 아님을 드러냄으로써 마침내 미래에의 욕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욕망에의 재개는 정체성을 서로 대립시키거나 그것들을 초월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징적 질서와 규범화된 폭력에 포섭되지 않는 일시적이고 잠재적인 움직임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소설은 주연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묻게 하는 자신의 “그림자를 딛고 걷다가 … 빛을 향해서” 돌아선 후 “수정체와 같은 맑은 눈이 자신을 향해 열렸다”(309면)는 것을 발견하며 끝을 맺는다. 혁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해갈 여성 주체를 환기하며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은 혁명의 상처로 인한 고통에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의 열어젖힘을 통

53) 김현주, 「아프로테 곁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한국문예비평연구』 21, 창조문화사, 2006, 333면.

54) Wendy Brown, *op. cit.*, pp. 75-76.

해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엮어나가려는 여성 주체의 서사를 보여준다.

정리하면, 혁명 이후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주체에 대한 요구는 청년-지식인-남성이라는 정체성을 소환했지만 이어진 5·16쿠데타로 청년-남성-지식인 주체는 다시금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실패라는 상처에 애착하는 형태로써만 혁명 정신을 계승해나갈 수 있었다. 이를 정연희의 소설은 재훈이라는 남성 인물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었다. 청년-남성-지식인 주체는 오로지 부정의(injustice)에 대한 경험에 천착함으로써만 정체성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서사는 혁명 이후 남성 주체를 “불의와 기만”(300면)에 저항한 애국심이라는 허상 속에 상징적으로 소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남성-지식인이라는 정체성 역시 일면 사회적 결속과 국가체제의 확립을 위한 헤게모니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것임이 드러난다. 한편, 특정 주체를 신성한 영웅으로 신화화하는 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상처 입은 여성 주체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직시를 통해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미래를 탐색한다. 이로써 단일하고 고정된 젠더적 기표였던 4·19는 새로운 의미로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사에서 여성 인물로 대표되는 주변화된 존재에게 혁명이란 과거의 무력감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언제나 과거에 열려있는 현재<sup>55)</sup>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4·19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던 과거의 분투가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게 하는 질문으로서 부단히 지속된다.

55) Sara Ahmed, “The Contingency of Pain”,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Routledge, 2004, p.33.

#### 4. 고통의 분열과 무지의 파악불가능성

##### : 박경리, 『노을진 들녘』

박경리의 『노을진 들녘』(1963)<sup>56)</sup>은 혁명에 직접 참여하는 남성 인물을 이성(理性)의 표상으로, 시골에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성 인물을 무지(無知)의 표상으로 내세우며 4·19를 통과하는 1960년대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전통적 윤리관에 입각한 기성세대로 대표되는 송 노인은 대동아전쟁 말기 공습으로 딸과 며느리를 잃고 학병으로 차출된 아들마저 소식이 끊기면서 손녀 ‘주실’과 함께 고향 송화리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다. 송노인은 식민, 해방, 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시대상과 문명의 발전이 집안을 붕괴시켰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손녀만큼은 역사적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주실을 사회와 철저히 단절시킨 채 양육한다. 이에 주실은 “할아버지 고집 때문에 아이가 병신이 됐다”(15면)는 소리를 들을 만큼 “원시적인 소녀”(10면)로 자란 상태이다. 이러한 여성 인물은 앞서 다룬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과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에서 윤희미와 주연으로 대표되던 청년-여성-지식인이라는 위치성과는 일면 계급적 차이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죽은 딸의 아들인 손자 영재는 자유당 정권에 치안국장을 지내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살며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청년”(9면)으로 성장한다. 이렇듯 소설은 대비되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4·19를 거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급격한 근대화로 혼란한 서울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자연에서 방학을 보내기 위해 시골 송화리에 찾아온 영재는 막상 순수하고 야만적인 자연을 마주하자 원초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며 “깊고 넓은 허무의 공간”이 불러일으키는 “심한 고독에 빠져”(49면) 있다. 그리고 그 원초적

56) 박경리의 『노을진 들녘』은 1961년부터 『경향신문』에 연재되어 1963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박경리, 『노을진 들녘』, 마로니에북스, 2013. 인용문에는 면수만 표기한다.

인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외사촌 주실이다. 주실의 “무지한 그 눈”과 “무르익은 사과 같은 “진홍빛” 이미지는 “영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 범죄를 권고하는 듯 밀어를 속삭이는 것”(42면)이다. 결국 근친상간이라는 금기를 거스르는 “매혹”(50면)에 시달리던 영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45면)에도 불구하고, 번개가 번뜩이던 날 “광적인 쾌감”(51면)에 휩싸여 “이성이 마비”(50면)된 채 주실을 겁탈하고 만다. 그 길로 영재는 서울로 떠나버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실이 임신하자 집안사람들은 평소 영재를 질투하고 주실에게 치근덕거려왔던 성삼을 의심한다.

서울로 돌아온 영재는 “전신이 으스스 떨려움”(56면)을 느낄 만큼 “죄의식과 회한”(74면)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잊기 위하여 하릴없이 친구들과 명동을 떠돌고 일화와 같은 다른 여성에 몰두한다. 이렇게 영재가 가해자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주실은 “오빠도 나쁜 자식이야”(147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치 상징적 질서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 사건 자체로는 괴로워하지 않는다. 주실의 무지는 금기의 의미조차 탈각시킬 만큼 강력한 정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영재의 소행임을 알고 있던 성삼이 송 노인에게 사실을 밝힌 후 비밀의 대가로 결혼을 요구함에 따라 주실은 성삼이라는 새로운 억압과 규범 아래 놓이게 된다. 성삼은 주실을 애정으로 대하기보다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을 뿐 아니라 송 노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영재를 굴복하게끔 만드는 방편으로 여기는 것이다.<sup>57)</sup> 그러나 주실은 “가죽끈”을 이용해 자신을 때리기까지 하는 성삼의 폭력에도 그다지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지 않”(341면)는 면모를 보인다. 새롭게 군림한 부성적 범조차도 무지를 통해 무시되기에 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체는 질서 내부로 포섭되지 않는다. 이처럼 “오욕을 오욕인 줄 모르고 불행을 불행인 줄” 구분하지 못하는 주실의 정

57) 장미영, 「박경리 1960-70년대 장편소설 연구」, 『여성문학연구』 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85면.

넘은 “동물”(341면)에 가까운 것으로서 순수하지만 비정상적이고, 인간답지 않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결국 송 노인은 주실이 성삼으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자살을 택한다. 이러한 송 노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주실은 아이를 사산하고 만다.

그런데 소설에서 주실의 사산은 곧장 혁명의 시작으로 이어진다.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과 흡사하게 여성 주체의 정동이 변화함과 동시에 혁명이 우발적으로 도래하는 것이다. 3·15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세상은 더욱더 소란스럽게 흔들”리고, 곳곳에서 “산발적인 데모”(293면)가 일어나더니 “마산”의거를 기점으로 “그 무서운 의분”이 “전국을 휘몰”(349면)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영재는 속으로 “야단”(349면)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새로이 등장한 여성 인물인 수명을 “광명”(253면)이라고까지 칭하며 애정을 통해 자기혐오와 죄의식에서 구원받고자<sup>58)</sup> 발버둥을 치기 급급하기에, 영재에게는 “출세”(354면)만이 최우선시될 뿐이다. 따라서 소설에서 4·19혁명은 영재와 주실의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과는 대조적으로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과 같은 도식적인 형태로만 나타난다. 앞선 3·15부정선거는 영재가 사무실에서 보던 신문 기사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형상화되며, 김주열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마산의거에 관한 서술 역시 영재의 친구인 동섭이 보던 신문을 통해 재현된다.

일면에는 국제신문협회 회원들이 한국의 언론 실태를 시찰하기 위하여 입경하는 사진과 기사가 크게 취급되어 있었다. 이면은 그저 시시하고 삼면에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불길처럼 마산 사건이 꼬리를 물고

58)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분이 쏟아놓는 말은 모두 자기 혐오와 고통뿐이니…… 이분은 나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러 온 것일까? 처참한 저 표정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지?”(254면)



나 있었다.

〈사라진 고문경관〉이란 타이틀이 눈을 끌게 하고 〈타살 후 물에 던져진 시체〉라는 기사의 내용은 표류한 신원미상의 시체를 해부한 결과 심장에는 피가 없었던 것으로 많은 출혈을 했을 것이며, 총상은 없었으나 마산 사건의 피해자로 생각되고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한다는 것이다.(362면)

위와 같이 혁명 직전의 사건에 대한 참혹한 서술과 대비되게, 청년-남성-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영재 무리는 혁명에 대해서도 “모두 약아빠져서 남이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걸”(365면)이라고 불평만 할 뿐 결국 “무관심이 좋아”(366면)라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4월 18일 혁명의 현장 역시 동섭이 영재에게 보여주는 신문을 통해 서사화될 뿐이다. 신문 기사에는 “고려대학생들이 “종로오가”를 중심으로 모여 “젊음과 울분과 정의의 울부짖음”을 폭발하는 모습이 실려 있고, “부산의 동래고교생의 데모”, “마산”(376면) 등이 언급되고 있다. 기사를 본 동섭은 곧장 “얼굴빛이 창백해지도록 흥분”하더니 “이러구 있을 순 없어”라며 집을 나서려고 하지만, 영재는 “혼자서 데모를 할래?”(377면)라며 동섭의 의분을 비꼬는 반응을 보인다. 즉 소설에서 영재는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별다른 의지를 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월 십구 일, 아침은 밝아왔다.

상오 아홉 시 반부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거리로 터져 나왔다. 그들은 지성을 자랑하는 학도답게 평화적 데모를 선언하고 캠퍼스를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동대문 경찰서 근방의 제일방직선에 이르렀을 때 유혈사태는 벌어졌다. ... 서울대학을 전후하여 성균관대학, 중앙대학, 고려대학, 국민대학, 연세대학, 건국대학, 한양대학, 경기대학, 동국대학 등 대학생들과 동성, 대광, 양정, 휘문 등 고교생 수만 명이 거리로 거리로, 분수처럼 몰려나왔다. 순한 양떼들은 격노한 사자로 변하여 동서남북으로부터

서울의 중심지에서 합류하였다. ... 연도를 메운 수십만 시민. 빌딩의 창문마다 매달린 수천의 시민, 박수 치고 만세 부르고 목이 터져라 성원한다. 하늘과 땅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호하고 뒤흔들렸다.

이와 같은 장관이 어느 역사 속에 있었던가. 아! 장하고 슬기로운 젊음의 힘, 민중의 힘,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해일처럼 독재의 아성을 덮으려는 순간, 장엄한 순간, 순간이다.(378면)

4월 19일에 이르자, 인용문과 같이 경무대 앞 시위의 현장을 중심으로 혁명이 형상화된다. 그런데 이 역시 기사를 인용한 것처럼 사건이 나열된 형식을 떨 뿐만 아니라 말미에는 르포르타주를 차용한 것과 같은 해설적인 경향이 과도하게 드러난다. 영재와 주실을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는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혁명의 순간에 관해선 사실에 기반 외재적 메시지가 병치되는 서술 방식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박경리의 『노을진 들녘』은 혁명 당시의 상황을 특정 주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혁명은 특정 계층이나 젠더 정체성에만 국한돼 의미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 속 서술 그대로 “민중의 힘”이자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해일처럼 독재의 아성을 덮으려는 순간”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현장에 관한 서술 후 곧장 이어지는 영재 중심의 서사는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경무대 앞 시위에 대한 묘사 직후 소설은 별도 공백 없이 그 시위대 “툼바구니에 끼어”(379면) 있던 영재를 초점화한 후, 이전까지 혁명 자체에 무감했던 영재가 동섭을 찾기 위해 헤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영재는 공교롭게 친구 상호가 “헌병 및 무장경관들과 험악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곤, 자신도 모르게 “의지 이전의 행동”으로 “그 속으로 뛰어”(379면)들었다가 실탄을 맞고 쓰러진다. 그때 부상자를 구하던 동섭이 또다시 우연히 영재를 발견하곤 병원으로 데려간다. 이같이 우연이 반복되는 작위적인 설정은 남성 주체

의 과잉된 정동이 우발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강조할 뿐 아니라 혁명이 충동적인 리비도의 집중으로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혁명은 이 질성과 복수성이 차나적으로 섞인 우연의 산물로서 상징되는 것이다.

하지만 4월 19일 이후 “젊은 사자들을 보내고 맞이하는 연도의 시민들의 마음은 짙은 불안에”(384면) 휩싸이기 시작하고, 이에 혁명의 자리는 빠르게 특정 주체에게 배치된다. 예컨대, 여성 인물인 수명은 “사일구의 분노와 감격”을 영재가 다쳤다는 사실을 안 이후론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는 “질책하는 듯한 동섭의 눈초리”(384면)를 받는다. 또한, 동섭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린 희생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는 지금도 우리 앞에 군림하고”(387면) 있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결국 서사에서 영재, 동섭, 상호로 대표되는 청년-남성-지식인 주체는 혁명 이후 “우리가 졌구나!”라는 판단을 내려버리며, 다시금 “암담”(386면)해진 현실 인식을 내보인다.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격렬한 충동에 휩싸인 채 지배 권력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하여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제되고 말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듯 실패한 혁명이라는 인식은 앞서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이나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에서 혁명 이후 청년-남성-지식인이 상처에 애착하는 모습으로 발전된 바 있다. 즉 자신들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인정을 요구하는 행위<sup>59)</sup>로 이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4·19 이후 1960년대를 관통했던 대학생 담론은 해방 이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민주주의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시도로서 청년-남성-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혁명이라는 역사적 실천을 인정하면서도, 이내 국가의 경제적 후진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정신의 개조라는 목표를 위해 남성 대학생에게 다시금 탈정치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sup>60)</sup> 그리하여 청년-남성-지식

59) 크레시다 헤예스, 강은교 역, 『스텐포드 철학백과의 항목들 15-정체성 정치』, 전기가오리, 2020, 20면.

60) 소영현, 앞의 글, 213면.

인은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해낸 혁명의 주체이자 4·19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세대로서 호명되어야 했지만, 이러한 정체성은 오로지 근대 성장-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질서와 애국심<sup>61)</sup> 아래 국한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청년-남성-지식인은 정체성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혁명의 주체를 자처하면서도 다시금 학업에만 정진해야 하는 위치로 소외됨에 따라 혁명의 실패라는 상처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박경리의 『노을진 들녘』에서도 찰나의 열정을 통하여 혁명에 참여하게 된 상호, 영재, 동섭 등 남성 주체들이 순식간에 “사월의 용사”, “사월의 영웅”(407면)으로 호명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청년-남성-지식인에게 국가를 위해 애국적인 희생을 감수한, 즉 ‘젊은 사자들’로 이미지화된 남성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는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죽는 게 썩스럽군. 난 애국자가 아니야.”(388면)라고 절실히 고백하고, 영재 역시 “그때의 심정은 결코 애국애족에서 우러나온 의분은 아니었”으며 그저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을 내던져버리고 싶은 자기 부정의 행동이었다고 주장”(407면)한다. 이렇듯 애국심을 부정하는 남성 인물은 1960년대 청년-남성-지식인이 고통을 정치에 새김으로써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상호, 영재와 같이 상처에 의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혁명 주체로서의 신화화라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거부하는 남성 인물은 분열적인 주체로서 기존의 질서로는 결코 포섭될 수 없는 실체를 노출하는 것이다.

한편, 혁명 이후 여성 인물의 삶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혁명과는 무관하다 못해 혁명 자체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던 여성 주체는 남성 주체와는 달리 상처에 애착하지도,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는다. 주실은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61) 권명아, 앞의 글, 240면.

수립한 질서 내에서만 양육되었다는 점에서, 또 외사촌인 영재에 의해 근친상간을 당했다는 점에서, 강압적으로 결혼한 남편 성삼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송 노인, 영재, 성삼으로 이어지는 남성 주체에 의한 폭력에 희생되었고, 이러한 억압을 통해 혁명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이중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원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서사의 양상은 여성 인물의 태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흔히 자신의 고통을 대변할 여력이 없는 여성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sup>62)</sup>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고통이 파악불가능하기에 여성 주체는 오히려 끝까지 기존 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동적인 ‘무지’의 양태를 실천한다.

이는 1960년대 당시 특정 정동이 어떻게 물신화되고 규율화되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라 아메드에 따르면, 규범적 주체는 국가 담론에서 상처 입은 당사자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고통과 같은 정동 까지도 특권적으로 점유한다. 즉 상처의 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마저도 권력과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특정 주체에게 확보되는 것이다. 『노을진 들녘』에서 남성 주체의 상처와 고통이 표면화되는 것은 고통의 형태가 식별되고, 승인되고, 재현되는 것 역시 권력 분배의 메커니즘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sup>63)</sup> 이에 반해 여성 주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윤색되거나 은폐되거나 파악불가능한 것이 된다. 주실이 사회적 혼란과 부성적 폭력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은 그 상처 자체를 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순진무구함에 가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소설은 인식되지 않는 고통이 배제되고, 상처마저도 위계화되는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즉 고통의 파악불가능성(ungraspability)<sup>64)</sup>을 통해서

62) 조윤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폭력 희생자들의 원죄의식」, 『인문학연구』 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53면.

63) Sara Ahmed, *op.cit.*, pp.32-33.

64) *Ibid.*, p.30.

승인된 주권의 허위를 폭로한다. 당대 앞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여성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근대적 주체를 불성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혁명 이후 평생 살아온 고향에서 벗어나 서울로 상경한 주실은 동섭에게 처음으로 “성性”과 같은 “인간에게 마련된 복잡한 계율”(467면)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비로소 문명을 의식하고 근대를 경험한다. 이에 주실은 표면적으로는 “그 야생의 허울을 벗어”(467면)갔지만, 여전히 규범적 질서로는 읽히지 않는 파악불가능성을 드러낸다. 결국 동섭은 “주실이는 아무래도 야성”이고, “자연 그대로이며 결코 인공일 수 없다는 것을”(469면) 인정하기에 이른다. 또한, 성삼은 서울에서 머물던 주실을 납치해 다시 송화리로 데려가지만, 이러한 성삼을 쫓아온 영재는 주실을 향했던 자신의 폭력적 욕망을 인정하며 주실은 “성삼이 것도 영재 것도 아니다.”(507면)라는 말을 남긴 채 성삼과 함께 죽음을 택한다. 이처럼 무지를 통한 파악 불가능성은 청년-남성-지식인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주체의 허상을 폭로하고, 상처가 정체성의 토대로서 물신화되는 것을 무력화<sup>65)</sup>한다. 그리하여 혁명은 특정 주체에 의해서 재현될 수 없는 기표로 자리한다. 이는 혁명에 대한 온전한 재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냄으로써 마침내 혁명의 서사를 총체화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여성 주체는 자신의 고통이 기존의 질서에서 읽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복수를 통해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 대신 정동의 파악불가능성을 통해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행하는 주체로 자리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송 노인, 영재, 성삼이 모두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송화리에 혼자 남은 주실의 형상은 “붉게 물든” 노을과 겹쳐진다. 서사에서 줄곧 본능을 자극하는 원초적인 색으로서 야만, 미개, 미몽<sup>66)</sup>으로 상징되던 ‘붉은빛’의 이미지가 다시금 반복되는 것

65) *Ibid.*, p.32.

66) 김양선, 「멜로드라마와 4·19혁명의 서사적 절합 -박경리의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 『푸른 운

이다. 이는 주실의 무지로 대표되던 빛깔이, 즉 파악불가능성이 상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의 역량으로서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정동마저도 특권화되어 특정 주체의 고통을 인식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에서 무지라는 부정성은 도리어 실패마저도 무효화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나간다. 그러므로 박경리의 『노을진 들녘』은 단순히 당대 여성을 고통조차 호소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양태로서 반영하기보다는, 고통조차 위계화된 현실에서 파악불가능성을 역으로 전용하여 혁명 이후를 윤색하지 않은 채 감각하려는 주변화된 존재를 표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 여성문학에서 드러난 혁명의 서사화 역시 멜로드라마의 비현실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상상력을 빌려온 것<sup>67)</sup>이라거나 혁명 자체만을 집중하여 형상화하지 않아 꺾진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지 않았다<sup>68)</sup>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노을진 들녘』은 혁명과 연결하여 읽히지 못했던 당대 여성의 경험과 감정을 읽히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오히려 현실에 기입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삶은 삶의 영역에서 재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기에, 여성문학은 혁명을 재현하는 데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성문학은 그 재현 불가능성 자체를 재현함으로써 마침내 혁명이 결코 특정 주체의 시선이나 동일성의 논리만으로는 재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득해낸다.

## 5. 결론: 재현(불)가능성으로서의 혁명

1960년대 한국문학 장에서 4·19를 재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남성

하], 『노을진 들녘』 다시 읽기,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29면.

67) 김현주, 앞의 글, 331면.

68) 「4·19와 문학작품」, 『경향신문』, 1965.04.19.

작가의 소설이 주로 언급된다. 특히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 ‘사랑’을 활용한 혁명의 서사화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형상화보다 4·19정신의 본질을 드러내거나 4·19를 시대적 징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sup>69)</sup> 반면,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 혁명이 사랑을 경유할 경우 감성성이나 통속성에만 교착된 것으로 간주되며 가치 절하된다. 통상 전형적인 연애 서사나 가족 서사를 구현한 남성 작가의 소설에서 “혁명을 통과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서사적 문법”으로서의 사랑은 여성(성)을 “혁명이 실패함으로써 내적 모순에 부딪힌 남성 지식인의 삶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타자의 형상으로” 치부함으로써만 완성된다.<sup>70)</sup> 즉 혁명 이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 무너짐으로써 입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책임을 여성(성)에게로 전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주체의 정체화 과정은 앞서 살펴본 강신제의 『오늘과 내일』,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 박경리의 『노을진 들녘』과 같은 여성문학에서 역시 상처에 애착하는 남성 인물의 모습으로서 일면 흡사하게 형상화된 바 있었다. 즉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도 공통적으로 청년-남성-지식인은 기성세대의 질서를 변혁하고자 자발적으로 행동했으나 혁명 이후 찾아온 혼란과 5·16쿠데타에 의한 소외를 경험한 형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청년-남성-지식인을 혁명의 주체로 호명하면서도, 동시에 국가 안정과 근대적 발전의 시급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권력

69) 4.19의 본질은 ‘시대적 징후’로 파악해야 하므로 프랑سخ혁명도 사건으로 취급한 훌륭한 소설이 없는 것처럼 4.19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형상화보다는 혁명이 남긴 것들을 사후적으로 되새기는 작품, 예컨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을 비롯해 최인훈, 하근찬과 같은 작가의 소설이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구중서 외 3명, 「4.19혁명과 한국문학」, 『문학사상』, 전예원, 1980, 167-185면.

70) 추선진은 김승옥, 박태순, 유주현, 남정현 등 4·19를 재현한 남성 작가의 소설을 분석하며, 이들의 작품에서 여성이 “혁명에 실패한 남성 지식인의 무능력과 열패감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타자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추선진, 「‘4·19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57-80면.



바깥에 위치하기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청년-남성-지식인은 미완의 혁명이라는 상처에 집착함으로써만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즉 혁명은 오로지 청년-남성-지식인의 소유물이 되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건인한 혁명이 되어야만 그 숭고한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거둬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혁명의 주체로조차 지각되지 못한 채 타자화됨으로써 이중적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여성 작가의 소설은 혁명의 실패로 인해 청년-남성-지식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동을 표현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이를 자기연민 혹은 내적 모순으로만 귀결시키지 않는다. 즉 본고에서 다룬 세 작품은 상처에 의한 고통의 정동이 발현됨으로써 이에 고착하며 구성되는 청년-남성-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을 표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소진된 비남성성까지도 포착해내는 것이다. 예컨대, 강신재 소설은 여성이라는 타자 없이는 홀로 완성될 수 없는 남성 주체를 보여줌으로써 혁명 이후 구성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취약성을 역설적으로 폭로했다. 정연희 소설은 남성 주체의 죽음을 통해 청년-남성-지식인이 획득할 수 있는 정체성이란 실은 자기 파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남성성이 일면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박경리 소설은 애국심을 거부하는 남성 주체를 통해 숭고한 영웅으로 신화화되는 남성성 바깥에서의 분열적인 경합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 세 작품은 청년-남성-지식인과 달리 이중적 상처를 입는, 여성의 현실을 마주하고 고통을 물신화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수행적 실천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여성 주체는 고정된 배치를 배반하는 이행을 통해 혁명 이후를 책임지고자 했고, 폐제되었던 욕망에로의 열어젖힘을 통해 혁명을 실패로서의 과거가 아닌 열려있는 현재로서 사유하고자 하였으며, 규범적 질서를 초과하는 파악불가능성을 통해 상처가 물신화되는 것을 무효화하고 혁명 이후를 끊임없이 감각하고자 했다. 즉 미완의 혁명과 탈정치화된 주체라는 낙인이 불러일으킨 이중적 상처를 타자

에 대한 복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려는 분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여성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4·19를 재현한 1960년대 여성문학은 궁극적으로 이항대립적이고 규범적인 헤게모니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여성 서사의 정치성을 고찰하게끔 한다. 즉 그간 한국문학 장에서 읽히지 못했던 삶의 형식을 당대의 현실로서 기입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하나의 증언이자 기록으로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4·19혁명은 젠더화된 표상인 ‘젊은 사자들’을 위시하지 않고도 주변화된 존재로서의 ‘개인’을 발견하고, 기존의 ‘의식’을 ‘전환’해나가는 하나의 계기로서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적 특수성을 이른바 ‘4·19 여성 서사’라고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여성문학에서 재현된 4·19혁명을 이중적 상처라는 억압의 맥락과 고통이라는 정동의 차원에서 읽어보는 작업은 그동안 혁명에 참여한 자신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해나가며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언어<sup>71)</sup>만 독점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sup>72)</sup>도 젠더화된 채 점유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끔 한다. 흔히 남성 작가의 소설은 혁명의 전개 과정을 관찰 및 보고한 후 비평했다는 점만으로도 4·19의 본질을 포착해냈다는 평가<sup>73)</sup>를 받는다면, 정반대로 혁명에 대한 좌절을 사랑의 과정으로 은유함으로써도 현실을 미학으로 승화시킨 리얼리즘이라는 평가<sup>74)</sup>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성 작가의 소설은 기사를 인용한 것과 같이 편집성이 짙은 언어든, 여러 인물을 초점화한 다중적인 언어든, 르포르타주와 같이 기록이 섞인 언어든, 연애 서사와 같이 사랑을 통과하는 언어든 어떤 언어로도 혁명을 재현하는 데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성 서사는 어떤 언어도 구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되기에 4·19혁명에 대한

71) 김미란, 「젊은 사자들의 혁명과 증발되어버린 ‘그녀들」, 『여성문학연구』 2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82면.

72)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246면.

73)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411면.

74) 구중서 외 3명, 앞의 글, 168면.

총체적 형상화는 찾아볼 수 없다<sup>75)</sup>는 판단만이 허용될 뿐인 것이다. 그렇기에 여성 서사는 혁명을 재현하는 데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 서사는 재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재현함으로써 승인된 재현적 구성 요소를 초과하는 복수의 현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끔 한다.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된 언어들로 혁명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자체를 재현함으로써 미처 인식되지 못한 존재들과 비규범적 실천을 가늠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실’이란 근본적으로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즉 혁명이란 늘 단순한 ‘사실’의 현실적 구성 요소들을 초과한 채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sup>76)</sup>임을 각성케 한다. 다시 말해, 여성 서사가 혁명을 재현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혁명이란 결코 단 하나의 의미 혹은 단수의 현실만으로 재현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다. 이렇듯 완결된 상태를 상정하거나 현실 너머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계가 작동 불가능한 그 자리를 역시나 식별 불가능하리라 판단된 언어으로써 노정하는 것은 총체성을 포착하기 위한 일련의 사유<sup>77)</sup>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그 불완전성까지도 포함함으로써만 총체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4·19 여성 서사’는 결국 혁명에 대한 참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그 재현(불)가능성 자체를 거듭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총체성을 구현해내는, 즉 현실의(불가능한) 재현이라는 문제에 가닿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5) 조윤아, 「1960년 전후 박경리의 글쓰기에 나타난 역사의식」, 『人文科學研究』 29,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71면.

76) 조르지오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15면.

77) 황정아, 「리얼리즘과 함께 사라진 것들: 운동으로서의 ‘총체성」, 『창작과비평』 42(2), 2014, 29-30면.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 강신재, 『현대한국신작전집 4 오늘과 내일』, 을유문화사, 1967.  
박경리, 『노을진 들녘』, 마로니에북스, 2013.  
정연희, 『정연희 전집 1-목마른 나무들』, 수필과비평사, 2016.

### 2. 단행본

-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4.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김현,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김현 문학전집 7』, 문학과지성사, 1992.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사, 2006.  
한우리 외 3명, 『교차성x페미니즘』, 여이연, 2019.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크레시다 헤예스, 강은교 역, 『스탠포드 철학백과의 항목들 15-정체성 정치』, 전기가오리, 2020.

### 3. 논문

- 공임순, 「1960~70년대 후진성 테제와 자립의 반/체제 언설들: 매관과 자립 그리고 ‘민족문학’의 함의를 둘러싼 헤게모니적 쟁투」,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75-116면.  
구중서 외 3명, 「4.19혁명과 한국문학」, 『문학과 상황인식』, 전예원, 1980, 163-185면.  
권정기, 「르상티망」, 『철학과 현상학 연구』 61, 한국현상학회, 2014, 65-90면.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222-261면.  
김미란, 「젊은 사자들의 혁명과 증발되어버린 ‘그/녀들」, 『여성문학연구』 2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79-118면.  
김복순, 「산업화의 최종심급과 재현의 젠더: 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7, 한국현대문학회, 2009, 407-449면.  
김주현, 「의거와 ‘혁명’ 사이, 잊힌 여성의 서사들」, 『혁명과 여성』, 선인, 2010,

- 159-188면.
- 김지미, 「4·19의 소설적 형상화」, 『한국현대문학연구』 13, 한국현대문학회, 2003, 385-425면.
- 김양선, 「멜로드라마와 4·19혁명의 서사적 절합 -박경리의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 『푸른 운하』, 『노을 진 들녘』 다시 읽기」,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19-144면.
- 김현주, 「아프레 곁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한국문예비평연구』 21, 창조문학사, 2006, 315-335면.
- 김현, 「소설은 왜 쓰는가-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서」, 『월간문학』 3(3), 1970, 210-251면.
- 박정애, 「규수작가의 타협과 배반」,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2006, 471-498면.
- 소영현, 「대학생 담론을 보라 -4·19정신의 소유권에 관한 일고찰」,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203-221면.
- 손혜민, 「연애대중과 소설 -1950-60년대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133면.
- 송인화, 「1960년대 『여원』 연애소설 연구 -연애담론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93-336면.
- \_\_\_\_\_, 「정연희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과 여성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3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151-181면.
- 신형기, 「4·19와 이야기의 동력학」,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287-324면.
- 이시성, 「4·19 소설의 주체 구성과 젠더 양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20면.
- 장미영, 「박경리 1960-70년대 장편소설 연구」, 『여성문학연구』 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73-298면.
- 전혜은,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기」,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여이연, 2018, 18-72면.
- 조윤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폭력 희생자들의 원죄의식」, 『인문학연구』 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37-168면.
- \_\_\_\_\_, 「1960년 전후 박경리의 글쓰기에 나타난 역사의식」, 『人文科學研究』 29,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59-81면.
-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87-118면.
- 추선진, 「4·19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57-80면.

-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13-44면.
- 허성원, 「페미니즘의 퀴어정동정치를 향하여: 독해실천으로서의 퀴어정동이론」, 『한국여성학』 35(2), 한국여성학회, 2019, 75-98면.
- 황정아, 「리얼리즘과 함께 사라진 것들: 운동으로서의 '총체성」, 『창작과비평』 42(2), 2014, 17-32면.
- 사카이 나오키, 신현아 역, 「정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364-374면.
- 엘스페스 프로빈,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수치의 쓰기」, 『정동이론』, 갈무리, 2015, 126-159면.
- Ahmed, S., "The Contingency of Pain",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Routledge, 2004, pp.20-41.
- Brown, W., "Wounded Attachments", *States of injury: Power and Freedom in Late modern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52-76.
- Butler, J., "Melancholy Gender-Refused Identification", *Psychoanalytic Dialogues*, 5(2), 1995, pp.165-180.

<Abstract>

## The 4.19 Women's Narrative and the Affect of Wounds

-Focusing on the 1960s Women's Literature in Korea

Choi, Dajeong

In the context of literary history, the 4.19 Revolution has been evaluated as an event that triggered discussions on the new literary sensitivities such as freedom and generational shift. But the discourses on the 4.19 Revolution in the Korean literature field have usually been focused on novels of male writers, so female writer's novels of the time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Although there are not many works that directly described the 4.19 Revolution, a significant number of female writers' novels written in the 1960s represented the 4.19 revolution in a directive or indirective ways. This proves that the women's literature had digested the experience of revolution in their own way. There certainly exists a point acknowledged and captured only when the lens of gender intervenes. Kang Shin-Jae, Jeong Yeon-hee and Park Kyung-ri are common in that they were female writers in the 1960s. Meanwhile, since they had different positions, the revolution was also narrated in various forms. Firstly, their novels rediscover the non-masculine which are exhausted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identity of "youth-male-intellectual", and reveal that the hegemonic masculinity mythologized as a noble hero was imposed forcibly in a sense. And the female characters have "double wounds" by both the incomplete revolution and the fact they weren't interpellated as a revolutionary subject, and feel the affect of "pain". But Instead of passing

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und, they respond by invalidating normative arrangements, resuming internalized desires, and disestablishing existing order through the ungraspability. In this way, this paper attempts to categorize this women's literature under the name of “the 4.19 Women's Narrative”, which redefines the meaning of marginalized beings by questioning the violence that constitutes normativity, and deconstructs the genderized representation of the 4.19 Revolution by sharpening performative practice that shake normalities.

Key words: The 4.19 Revolution, Women's Narrative, 1960s Korean Literature, affect, injury, pain

투 고 일: 2022년 5월 15일

심 사 일: 2022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6월 20일